

## 금주의 가정

<b>금 주</b>		<b>다음주</b>
이원걸 유홍자		이지원 윤선화

## 묵상하는 글

### 생명과 부활

몇 해 전, 뉴욕의 한 코미디언이 임종을 앞두고 남긴 유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해 주시오. 특별히 하버드 대학으로 보내주길 바라오. 이것이 내 부모님의 평생 소원을 들어드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오. 부모님은 늘 내가 하버드에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내게 남은 방법은 이 길뿐이러오.”

그는 마지막 순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죽음은 역시 고통스럽군”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언은 한 편의 블랙코미디 같았지만, 그가 마주한 죽음의 실체는 결코 웃을 수 없는 엄숙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는 꽤 많은 말을 늘어놓곤 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나 나 자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태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은 죽음을 미화하려 애씁니다. 개중에는 자살을 예찬하는 낭만적 허무주의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화는 어쩌면 죽음이라는 공포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인간 본능의 발로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삶과 이별을 고하는 필연적이고도 아픈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선은 다릅니다. 성경은 죽음을 억지로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 너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스스로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지금 당신의 삶이 좌절과 어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생명과 부활의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무덤 저 건너편의 소망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상처 입은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의 장벽일 것입니다. 죽음의 극복은 불로초를 구해 생명을 연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단순히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불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를 뛰어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는 살아있는 소망 때문입니다.

## 봉사하시는 분들

임시 당회장 정재두 Rev. Chung, Jae Doo

반 주 자 김재순 Accompanist. Kim, Jae Soon

## 예배/모임안내

주일 예배 오전11시 본당

토요일아침예배

수요저녁예배

주일성경공부

## 2026년도 잭슨빌 한인장로교회 협력 선교지

말알 선교회(아틀란타)

시각 장애인 선교: 영광 장로교회 (한국, 김화자전도사)

교도소 선교: Smith State Prison(김철식 선교사,조지아)

페루: 김성일/김성숙선교사

일본: 한인교회 노숙자 선교

## 봉사위원(Ushers/Services)

담당	1/4	1/11	1/18	1/25
안내/헌금	김미원/박향미			
기도	김동일	최정배	김오한	최은경
친교	김동일 김재순	이은순	김영숙	이지원 윤선화

## 지난주 헌금 내역(Offering) 총액: \$1,345

주정(Weekly)	15명
십일조	양재형
감사(Thanks)	허중호 김재순 김금순 김영출 박창현 유홍자 이지원 김오한 익명1
선교(Mission)	김정선 익명1

## 지난주 출석 통계

주일예배: 40명

창립일: 1978년6월5일

2026년 1월 4일

48권 1호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Jacksonville

주소: 856 Margaret Street, Jacksonville, FL 32204

전화 904-355-9793

정재두 목사 206-979-6382

홈페이지: [www.jaxkpc.org](http://www.jaxkpc.org)

# 신년주일예배

인도: 정재두 목사

2026년 1월 4일	11시
경배와 찬양 Praise & Adoration	다함께 Congregation
예배사 Call to Worship	인도자 Liturgist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Congregation
*찬송 Hymn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다함께 Congregation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시편 90편 다함께 Congregation
회중기도 Prayer	김동일 장로 Elder D. I. Kim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계시록 21:1-7 인도자/성도 Responsive Reading
말씀 Sermon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기도 Prayer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찬송 Hymn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 Offering	317장 1절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Congregation
봉헌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Liturgist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Liturgist
*찬송 Hymn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다함께 Congregation
*축도 Benediction	정재두 목사 Rev. Chung J.D.
*후주 Postlude	반주자 Pianist

\* 표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십시오(Please stand up if you are able)  
• 헌금은 헌금함에 직접 넣어 주세요(Please put offering into the offering box)

# 음악 교독문 교독문 [시편90편]



인도자: 주님께서 대대손손 우리들의 거처시며  
저산들이 생기기전 세계가 생기기전  
영원부터 주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회 중: 주님께서 사람들을 티끌로도 돌리시고  
죽을 인생 돌아가라 말씀도 하십니다.

인도자: 우리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고  
지나간 밤 반짝이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회 중: 주님께서 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오면  
인생이란 한순간의 꿈결과도 같은 것,  
아침에 돌아나는 풀잎일 뿐입니다.

인도자: 아침에는 돌아나서 꽃을 활짝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고 말 풀잎일 뿐입니다. (후렴)

회 중: 주님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이옵니까?  
오시어서 주의 종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인도자: 저희들이 평생토록 기쁘고도 즐겁도록  
아침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회 중: 괴로웠던 날수만큼 재난당한 햇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인도자: 주님의 종들에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종들의 후손에겐 주님 영광 보이소서. (후렴)

# 교회 소식 Announcement

1. 오늘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을 하시고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운영위원회 소집  
오늘 오후 1시 제2 교육실
3. 오늘부터 헌금은 헌금함에 넣지 않고,  
예배 시간에 헌금 봉사자가 봉헌받습니다.
4. 지난주 주일 2025년 12월28일, Kidd Hu, 전지원 성도 부부가  
득남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Samuel Hu (하준)
5. 오늘 친교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동일 김재순 장로가정에게  
감사드립니다

